

5/1/16

설교 제목: 우리 함께 이루어가는 구원

전하는 이: 김순배 강도사

말씀: 열왕기하 5:1-14

- (왕하 5:1)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거나 나병환자더라 **절관주** 눅 4:27
- (왕하 5:2) 전에 아람 사람이 때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으며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절관주** 왕하 6:23
- (왕하 5:3)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 (왕하 5:4)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 (왕하 5:5)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십 달란트와 금 육천 개와 의복 열 벌을 가지고 가서
- (왕하 5:6)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 주소서 하였더라
- (왕하 5:7)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나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줄 알라 하니라 **절관주** 창 30:2, 삼상 2:6
- (왕하 5:8)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 (왕하 5:9)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 (왕하 5:10)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 강에 몸을 일곱 번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절관주** 요 9:7
- (왕하 5:11)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절관주** 사 55:8

(왕하 5:12)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왕하 5:13) 그의 종들이 나아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더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왕하 5:14)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 강에 일곱 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 아이의 살 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절관주** 욘 33:25

본문은 우리에게 잘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주일 학교에서 하는 연극에 자주 등장하는 레파토리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인지 본문을 묵상하는데 제 머리 속에 계속 세트가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묵상 중 떠오른 세트를 가지고 저는 오늘 여러분과 좀 색다르게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도 평소와는 달리 제가 묘사하는 세트를 머리 속에 그리며 세트 안으로 들어 오셔야만 합니다.

자, 여러분을 세트 속으로 초청합니다.

타이틀은 '우리 함께 이루어가는 구원'이고 주인공은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입니다.

먼저 이야기의 역사적 지역적 배경을 소개합니다.

아람은 구약 시대 이스라엘의 북동쪽, 지금의 시리아 지방에 있었던 나라로 한때 앗수르, 바벨론 같은 나라들과 어깨를 견줄만큼 강대국이었으며 구약 성경에서 가나안 족속 중 블레셋 다음으로 많이 등장하는 나라입니다.

이삭의 아내 리브가, 야곱의 외삼촌 라반, 외삼촌 라반의 딸들이자 야곱의 아내들인 레아와 라헬이 다 아람 사람일 정도로 이스라엘과 아람은 서로 구별없이 가깝게 지내 내려오다가 다윗 왕 때에 와서 적대적인 관계로 돌아섰고 그 후로 오랜 세월 이스라엘과 대립하며 지냈습니다.

그렇지라도 경제적으로는 서로의 필요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교역했습니다.

주인공 나아만은 아람 왕의 군대 장관입니다.

전투를 승리로 이끌어 아람을 적국으로부터 구해낸 공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왕의 총애를 한 몸에 받는 용사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가지길 원하는 부와 권력과 명예를 다 거머진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무슨 소용입니까?

그에게는 말 못할 고민이 있었으니 그는 나병 환자였습니다.

솔직히 고민 정도가 아니라 절망입니다.

말로 표현은 못하지만 마음 속으로는 돈과 권력과 명예는 없어도 밝고 건강하게 사는 필부필부가 뼈에 사무치도록 부러웠을 것입니다.

천하를 다 가지고 호령하며 산들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세상에 부귀영화가 다 무슨 소용입니까?

내 몸이 썩어 문들어지고 있는데.

세트 1: 나아만 장관 집 안채

나아만 장관집 안채에는 북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와 장관 아내의 수종을 들며 지내는 한 계집종이 나아만 장관의 아내에게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말인 즉 주인인 장관이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를 찾아 갔으면 좋겠다고 그 선지자는 주인의 나병을 고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계집종은 이집에 잡혀와 살면서 이 가정에 말 못할 고민이 있다는 사실을 바로 알아챘습니다.

웬지 집안 분위기가 겉보기와는 다르게 무겁고 침울했습니다.

생각같이 화려하지도 않았고 새어나오는 행복한 웃음 소리도 없었습니다.

주인 부부의 부부 생활도 이상했고 주인 방에서는 피묻은 빨래가 나왔습니다.

아, 주인이 나병을 앓고 있구나!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살려내 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주저없이 자신의 조국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땅에 있는 선지자 엘리사를 소개합니다.

저 같으면 말을 끄내기까지 많은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주인의 병을 일개 계집종인 내가 아는체 해도 괜찮을까?

괜히 아는체 하다 쥐도 새도 모르게 죽지는 않을까?

내가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에게 가면 병을 고칠 수 있다고 말해 보았자 주인이 들은 척이나 할까?

만에 하나 내 말을 듣고 사마리아에 있는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 갔는데 병이 낫지 않으면 어쩌나?

만약 그런 일이 발생하면 소개한 나는 어떻게 되나?

공연히 남의 일에 끼어들다 나만 손해 보는 것은 아닌가?

여러가지 생각으로 머리가 복잡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계집종은 주인을 진심으로 사랑했기에 자신의 목숨을 아까와 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불이익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말을 꺼냅니다.

계집종은 신실하고 성실했습니다.

비록 포로로 잡혀와 이 집에서 주인 아내 수종드는 일을 하면서 지내지만 주인을 사랑했고 주인을 위해 성심껏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믿었습니다.

그러기에 주인이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주인의 병을 고쳐 주실 것을 확신했던 것입니다.

평소 계집종의 행동 거지를 눈여겨 본 주인의 아내는 이 계집종이 신실하고 성실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신뢰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집종이 감히 이런 말을 입에 담았을 때 진노하거나 무시하는 대신에 마음에 새겨 들었습니다.

저는 아주 오래 전에(한 20 년은 된 것 같습니다) 새벽 예배를 드리다가 이 계집 종을 목상하고 받은 은혜를 아직도 잊지 않고 가슴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 전혀 의심을 하지 않고 믿는 그녀의 믿음과 신실함이 한없이 부러웠습니다.

그리고 이 계집종의 평소의 성실한 삶을 흠모했습니다.

도대체 이 계집종의 평소 삶이 얼마나 신실했으면 장관의 아내가 보잘것 없는 저 계집종의 말을 저토록 의심없이 받아들일 수 있단 말인가?

저도 그런 삶을 닮고 싶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저도 이 계집종 같은 순전한 믿음과 신실함 그리고 성실함을 갖게 해 달라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세트 2: 나아만 장군의 거처

계집종으로부터 이 말을 들은 주인의 아내는 남편의 거처로 건너갑니다.

사랑하는 남편의 괴로움에 아무 도움도 되지 못하고 지켜 보아야만 했던 아내는 찢어지는 가슴을 억누르고 남편에게 조용히 계집종의 말을 전합니다.

이렇게 하면 낫는다, 저렇게 하면 낫는다, 어디 한 두 번입니까?

이런 저런 말 다 듣고 와서 전하고 해보라고 종용하는 아내 아닙니까?

그때마다 시키는대로 다 해 보았지만 어디 병 나았습니까?

이번에는 또 계집종 말을 듣고 사마리아까지 선지자를 찾아가라니요?

몸은 아픈데 낫지는 않고.... 짜증을 낼 법도 한데 그저 묵묵히 아내의 말을 듣습니다.

병든 몸 때문에 남편 구실도 제대로 못하는 나아만은 아내 앞에 그저 죄인일 뿐입니다.

왜 지금 나아만 장관 이야기를 하는데 제 가슴이 이렇게 아린지 모르겠습니다.

세트 3: 아람 왕궁

나아만 장군이 궁에 들어가 왕을 알현하고 자초지종을 설명합니다.

그 말을 들은 왕의 가슴이 무너집니다.

왕은 자신이 진실로 사랑하고 아끼는 신하 나아만의 고통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에 살릴 방법만 있다면 무엇이든지 다 해주고 싶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왕은 당장 가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왕에게 특별히 부탁하는 친서와 선지자에게 줄 예물까지 푸짐하게 챙겨 줍니다.

세트 4: 이스라엘 왕궁

나아만 장관이 이스라엘 왕을 찾아 가서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아람 왕의 편지를 보입니다.

아람 왕의 편지를 본 이스라엘 왕은 얼굴이 하얗게 질립니다.

지금도 고치기 어렵지만 그 당시는 천형과 같았던 나병을 무슨 수로 고쳐준단 말입니까?

혹시 괜한 꼬투리를 잡아서 시비를 걸려는 계략은 아닌가 별별 생각이 다 듭니다.

마침 엘리사 선지자가 이 소식을 듣고 왕에게 사람을 보내 나아만 장관을 자신에게 보내라고 합니다.

세트 5: 엘리사 선지자 집 앞

나아만 장관이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엘리사 선지자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선지자 엘리사는 코뿔이도 안 보이고 사환만 뼈죽이 문밖에 나와 “요단강에 몸을 일곱 번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한마디 불쑥 던지더니 그만입니다.

이윽고 여태껏 억누르고 있던 슬픔과 함께 나아만 장관의 노가 폭발합니다.

“그래도 내 댄엔 내가 찾아가면 선지자라는 사람이 친히 나와서 반갑게 맞아 주고 아픈 곳에 손을 얹고 여호와 하나님 이름으로 안수하여 병을 낫게 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선지자라는 사람은 어디에 있는지 보이지도 않고 겨우 사환이라는 자가 불쑥 나타나 요단 강에 일곱 번 몸을 잠그라 하니 왜 우리 아람 땅에는 강이 없더냐? 아람에는 요단보다 더 좋은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발이 있지 않느냐?”

‘내가 비록 나병에 걸려 병을 고쳐 보려고 여기까지 당신을 찾아 왔지만 그래도 내가 누군데 당신이 나를 이렇게 푸대접 해도 되는 건가?’

생각이 여기에 미치자 자기 자신이 한없이 처량하게 느껴지고 화가 치밀어 그냥 돌아가겠다고 객기를 부립니다.

그러나 나아만에게는 진실로 좋은 종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라고 주인이 타국에서 이런 푸대접을 받는 것이 기분 좋을 리 없었을 것입니다.

성질 같아서 자신들이 먼저 “주인님 갑시다! 내 참 더러워서. 우리 아람 땅에 가서 고칩시다!” 하면서 먼저 나서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진실로 주인을 사랑했기에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감정을 억제하고 주인을 설득합니다.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일을 행하라고 시켰으면 행치 아니 하였겠습니까? 하물며 요단 강물로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한 것을 못하실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돌아 가겠다는 주인을 만류합니다.

나아만 장관은 종들의 말에 마음을 돌립니다.

아람 땅으로 돌아가면 영영 병을 고치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이미 잘 알고 있는 그는 못 이기는 척 자존심 성질 다 내려놓고 엘리사 선지자가 시킨대로 요단강에 내려가서 강물에 일곱 번 몸을 잠급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 살이 어린아이의 살 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이야기는 영혼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죄인 하나를 구원시키기 위해 주위 모두가 각자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자신들의 몫을 감당해 내고 드디어 한 영혼을 구원해 내고야마는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나병은 죄를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나병 환자는 죄에 감염된 죄인을 말합니다.

인간은 모두 나아만 같은 나병 환자입니다.

세상에 의인은 한명도 없기 때문입니다.

나아만 장관이 세상에서 제 아무리 크고 존귀한 자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화려한 옷으로 피고름이 흐르는 몸을 감추고 사는 나병 환자, 다시 말해 고침을 받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하면 종국에는 영원한 불못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진 불쌍한 죄인일 뿐입니다.

나아만은 이 사실에 절망합니다.

그런데 보잘 것 없어 보이는 한 계집종으로부터 기쁜 소식을 듣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만 하면 당신은 살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을 살릴 것이다' 라는 Good News 복음이었습니다.

이 기쁜 소식, 복음을 들은 나아만 장관에게는 이제 소망이 생겼습니다.

당장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러 갑니다.

그런데 그 길이 생각같이 평탄하지만은 않습니다.

하마터라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갈 뻔한 아찔한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외는 다른 어떤 살 길이 주어지지 않았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던 나아만 장관은 자신의 모든 생각과 혈기와 자존심을 다 내려 놓습니다.

오로지 그 분께 순종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구원을 이루어 냅니다.

승리한 것입니다.

이 구원은 나아만 장관 혼자 이루어 낸 것이 아닙니다.

주위 모두가 힘을 합쳐 이루어 낸 것입니다.

계집종도, 아내도, 왕도, 사환도, 종들도 나아만 장관을 살리기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들의 몫을 다 했습니다.

그랬기에 위기의 순간도 있었지만 잘 넘기고 승리 할 수 있었습니다.

모두가 승리한 것입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한 영혼을 살려내시기 위해서 이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저주의 나무 십자가에서 피흘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십자가에서 피흘려 죽으시는 것이 쉬웠을 것 아니냐고요?

천만에요.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100%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이 아픔과 고통을 느끼셨습니다.

그러기에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실 때 이 잔을 피할 수 있거든 피하게 해달라고 아버지께 간청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고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루어 드리기 위하여 끝까지 순종하심으로 당신에게 맡겨진 지상 사명을 감당해 내신 것입니다.

먼저 구원 받아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우리도 나아만 장군에게 기쁜 소식을 전한 계집종 같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또한 복음을 전해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려고 찾아 헤매는 사람들에게 나아만 장관을 사랑했던 이들이 했던 것처럼 우리도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도와 주어야 합니다.

구원은 우리 모두 함께 이루어 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각자 자신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주어진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